

‘음악’으로 기억하고 연대하다



‘기억’은 시간에 녹슬지 않는다. 음악은 그 기억을 다시 불러내는 가장 따뜻한 언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예술을 통해 시대의 아픔을 되새기고,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 36회 광주음악제’가 오는 23~25일 오후 7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제의 주제는 ‘음악으로 기억하고, 화합으로 나아가기’다. 광주음악협회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등이 공동 주최한다.

사흘간 이어지는 공연은 각각 ‘기억’, ‘광주’, ‘화합’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클래식·국악·재즈·탱고 등 장르와 세대,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예술가들의 협업은 광주의 오월 정신을 예술로 환기하고, 관객과의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막일인 23일에는 지역의 젊은 클래식 연주자들이 무대에 올라 기억의 조각들을 선율로 엮는다. ‘기억을 잇는 선율’이라는 부제를 내건 이날 무대는 음악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매개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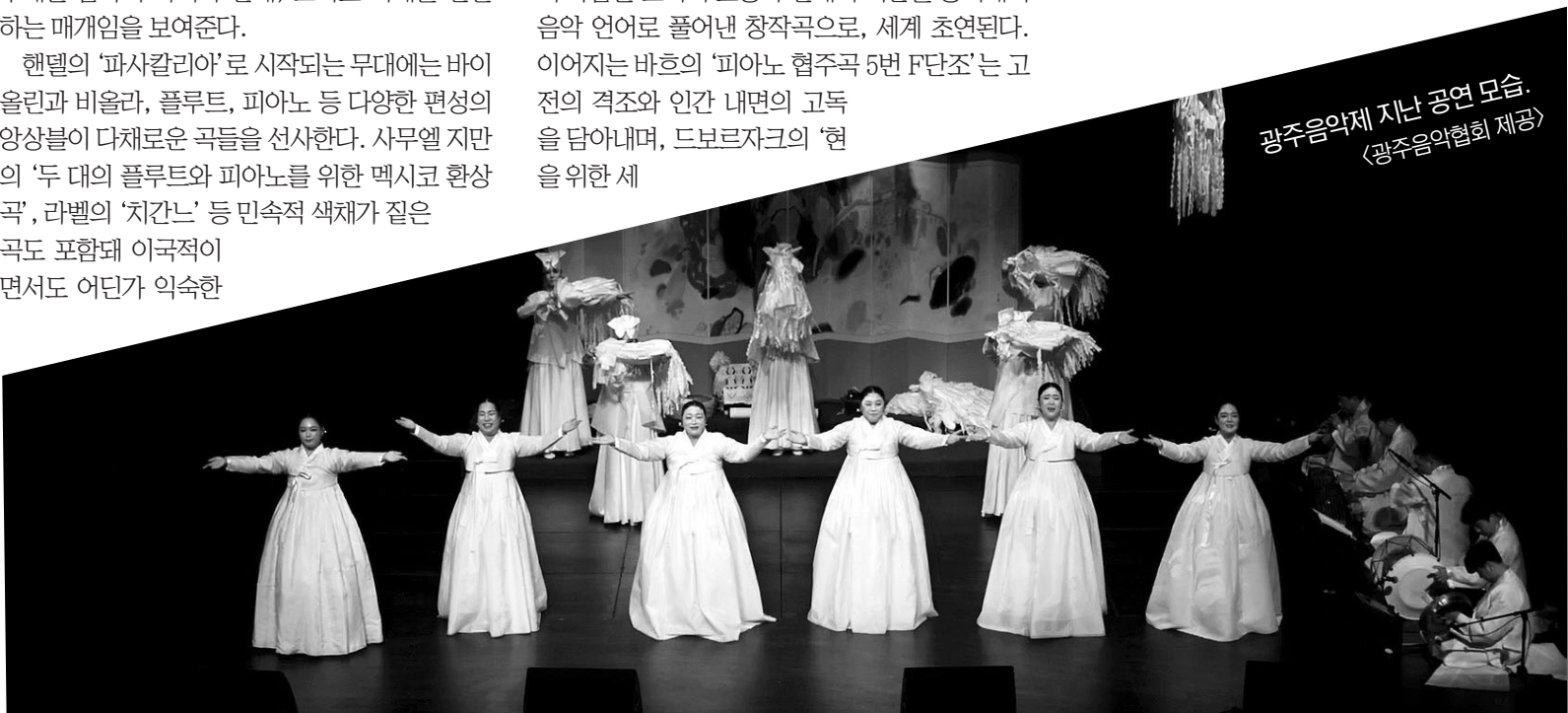
헨델의 ‘파사칼리아’로 시작되는 무대에는 바이올린과 비올라, 플루트, 피아노 등 다양한 편성의 앙상블이 다채로운 곡들을 선사한다. 사무엘 지만의 ‘두 대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멕시코 환상곡’, 라벨의 ‘시간느’ 등 민속적 색채가 짙은 곡도 포함돼 이국적이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5·18 45주년 기념 ‘광주음악제’ 23~25일 ACC 예술극장서 개최
클래식·국악·재즈·탱고 등 협연
장르·세대 아우르는 공감의 무대

정서를 자아낸다. 각각의 작품은 시대와 지역, 정서가 다르지만 ‘기억’이라는 감정선을 따라 아픈 과거를 딛고 나아가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사한다.

둘째 날인 24일에는 ‘다시, 광주’를 주제로 한 무대가 펼쳐진다. 5·18의 도시 광주를 현재의 언어로 다시 불러내는 이날 공연은 광주음악협회 페스티벌 챔버오케스트라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며, 지휘자 이현민과 피아니스트 임민경의 협업으로 더욱 깊이 있는 해석을 보여준다.

이날 무대의 백미는 작곡가 박강준의 위촉 신작 ‘곡6-다시 빛나는’이다. 광주의 정신을 주제로 한 이 작품은 도시의 고통과 연대의 시간을 동시대의 음악 언어로 풀어낸 창작곡으로, 세계 초연된다. 이어지는 바흐의 ‘피아노 협주곡 5번 F단조’는 고전의 격조와 인간 내면의 고독을 담아내며, 드보르자크의 ‘현을 위한 세



광활한 바다 위 인간의 고독 선율로…

광주예술의전당, 29일 ‘11시 음악산책-명작시리즈’ 노인과 바다

광활한 바다 위, 인간의 고독과 존엄이 선율로 되살아난다.

광주예술의전당은 ‘11시 음악산책-명작시리즈’ 네번째 프로그램으로 오는 29일 오전 11시 전당 소극장에서 ‘노인과 바다’를 선보인다.

1952년 발표된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쿠바의 노어부 산티아고가 84일간의 고기잡이 끝에 청새치를 낚고 상어떼와 사투를 벌이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인간은 파멸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문장을 통해 인간 존재의 투지와 품위를 담담히 그려내며, 현대 문학의 고전으로 자리매김했다.

공연은 1막 ‘84일’부터 4막 ‘인생이여 만세’까지 작품의 서사를 따라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음악과 문학, 미술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인문학적 풍성한 무대를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아니스트이자 클래식 연구가 안인모가 콘서트 가이드를 맡아 고전 텍스트의 맥락을 풀어내며 관객의 몰입을 돕는다.

연주는 7인조 라틴 재즈 그룹 ‘라틴 팩토리’가 맡는다. 색소폰 유종현을 중심으로 피아노 손소희, 보컬 홍주혜, 알토 색소폰 김영광, 테너 색소



공연 출연진 모습.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폰 박창훈, 드럼 이기상, 베이스 권태우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이들은 ‘날 사랑해 줄 이 누굴까’, ‘모리엔도 카페’, ‘브라질풍의 바흐’, ‘Viva la Vida’ 등 라틴 특유의 정서가 깃든 음악으로 작품의 분위기를 감성적으로 채운다.

무대에는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 상처 입은 사슴’도 함께 소개된다. 몸에 화살을 맞고도 침착히 숲을 가로지르는 사슴의 모습은, 상처 속에서도 생을 밀고 나아가는 존재의 내면을 상징하며 헤밍웨이의 메시지와 교차한다.

안인모는 “폭염이 이어지는 일상 속에서 이번 공연은 음악과 문학, 미술을 통해 관객에게 시원한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비움과 채움, 침표와 마침표

여수 출신 명인숙 시인 ‘문득 침표를 찍고 싶을 때’ 펴내

웬지 그럴 때가 있다. 잠시 쉬어가고 싶을 때, 또는 침표를 찍듯 부진한 일상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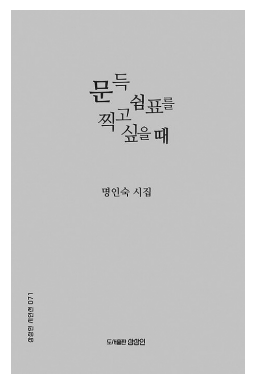
여수 출신 명인숙 시인의 시집 ‘문득 침표를 찍고 싶을 때’ (상상인)는 그런 느낌을 주는 작품집이다.

정재훈 문학평론가에 따르면 명 시인에게 시를 쓰는 일은 “일상 곳곳에 균열하게 퍼진 언어들의 틈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시인은 그런 존재다. 모든 것이 막힌 듯 틀어박힌 곳에서도 미세한 틈을 발견하고 그것에 숨결을 불어넣는다.

그 숨결은 때론 메마른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고 좌절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는 생기를 준다. 이때의 틈은 절망을 희망으로 변환하는 숨구멍이 된다.

“버리고 싶으면/ 월정사 전나무 숲길을 가자// 아픈 마침표들의 얼굴이/ 새일을 열어 곧게 다리를 뻗는다// 걷고 걷다 보면/ 놓쳐버린 침묵 사이에/ 당신이라는 침표를 찍는다”



표지시 ‘문득 침표를 찍고 싶을 때’는 비움과 채움, 침표와 마침표 등 서로 상반된 의미와 분위기들로 직조돼 있다. 화자는 무언가를 버리기 위해 전나무 숲길에 들어선다. 걷고 걸으며 깨닫는 것은 결국은 마침표와 침표 사이의 그 무엇이다. 대

상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지나버린 시간일 수도, 버리고 싶은 기억일 수도 있다. 아니 어떤 언어로도 묘사할 수 없는 신비한 순간일 수도 있다.

그러다 “걷기만 하면 비워지는 숲길”에서 화자는 무언가를 비워내고 그 빈 틈에 새로운 무언가를 채운다. 비움과 채움의 길항이다.

한편 명인숙 시인은 사·그림책 ‘결혼하지 않는 여자’를 펴냈으며 2025년 전남문화재단 창작지원금을 수혜받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지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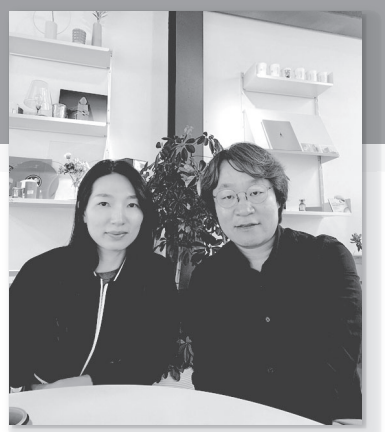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